

후기 청소년의 개체화와 자아정체감과의 관계

Individuation and Ego Identity in Late Adolescence

백지숙*

Baik, Jee Sook

ABSTRACT

Individuation and ego identity formation was studied in 297 university students in North Cholla Province. They completed the Korean Late Adolescent Individuation Questionnaire, and the revised version of the Objective Measure of Ego Identity Status. One-way ANOVA revealed differences in identity status as a function of individuation categories except in moratorium status. Individuated(??) students yielded the highest identity achievement scores and the lowest diffusion scores. Ambiguous students yielded the highest diffusion scores. Less individuated(??) students had the highest foreclosure scores while pseudo-autonomous students had the lowest foreclosure scores.

I. 서론

오늘날 청소년 후기의 중요한 발달과제 중의 하나로서 개체화(individuation)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개체화가 청소년 후기의 발달 및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차츰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추세이다.(Baik, 1997; Grotevant & Cooper, 1982, 1985, 1986; Lapsley, Rice & Shadid, 1989; Rice, Cole & Lapsley, 1990). 그런데, 이제까지 개체화는 서로 다른 관점에서 이해되어져왔다. 먼저 Blos를 중심으로 하는 정신분석학적 관점이다. Blos는 유아기에 일어나는 첫번째 분리-개체화(separation-individuation)(Mahler, Pine, & Bergman, 1975) 과정을 청소년 시기에 적용하여 청소년기를 두 번째 분리-

개체화 시기로 규정하였다. Blos(1979)에 의하면, 분리-개체화 과정은 유아기에 형성되어진 내면화된 대상(부모)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시도이며 동시에 자아감(sense of self)을 재형성하려는 시도인 것이다. 정신내적(intrapsychic) 과정인 개체화 과정을 통하여 청소년은 부모와의 관계를 거부하게 되고, 내면화된 부모의 영향으로부터 정신적으로 벗어나고자 하며 자신만의 개인적인 삶을 살아가고자 하게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청소년의 자립, 독립, 부모로부터의 정신적 분리는 건강한 적응의 표현으로 받아들여졌다.

한편, 개체화 과정에서 부모로부터의 '분리' 만

* 이화여자대학교 소비자인간발달학과 강사

을 강조한 정신분석학적 관점과는 달리, 부모와의 연결을 개체화 과정에 포함시킨 보다 포괄적인 관점이 있다. 정신적 분리라고 해서 반드시 부모와의 연결을 전적으로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으며, 건강한 분리는 오히려 부모와의 지원적이고 밀접한 관계 안에서만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정신적 분리를 통해 청소년은 이제까지 부모와의 관계를 새로운 형태로 수정하여 계속 유지시킬 수 있게 된다(Josselson, 1988). 이렇듯 분리와 연결은 서로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매트릭스의 양면이며, 이 중 어느 하나에만 초점을 맞추고 다른 하나를 제외시킨다면 청소년기 개체화 과정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게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Grotevant과 Cooper(1982, 1985, 1986)는 청소년의 주요한 과제를 부모와의 지원적이고 밀접한 관계 안에서 개체감(sense of individuality)을 확립하는 것으로 보았으며, 개체화를 가족 구성원의 분리와 연결의 상호작용으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개체화는 정신내적 과정이 아니라, 가족 구성원 사이의 관계의 질(quality)로서 인간상호적(interpersonal) 관계를 의미한다.

오늘날 많은 청소년 학자들은 개체화를 가족 구성원의 분리와 연결의 상호작용으로 보는 것에 동의하고 있으며(Lapsley, Rice, & Shadid, 1989; Rice, Cole, & Lapsley, 1990; Quintana & Lapsley, 1990; Quintana & Kerr, 1993), 이 상호작용은 네 가지 관계 유형을 파악함으로써 비로서 측정 가능하게 되었다(백지숙·도현심·박성연, 1998; Baik, 1997). 분리와 연결을 두 축으로 하여 개체화형(Individuated)은 부모와의 관계에서 높은 정도의 분리와 연결을 보이며, 가독립형(Pseudoautonomous)은 높은 분리와 낮은 연결의 정도를 보인다. 의존형(Dependent)은 부모와의 관계에서 낮은 분리와 높은 연결의 정도를 보이며, 애매형(Ambiguous)은 낮은 분리와 낮은

연결의 정도를 보인다. 이들 네 개의 개체화 유형을 이용하여 개체화가 대학에서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개체화형이 대학에 가장 잘 적응하고 있었으며, 애매형이 가장 낮은 적응도를 보였다(백지숙·도현심·박성연, 1998; Baik, 1997).

청소년의 또 다른 중요한 발달과제로 자아정체감의 형성을 들 수 있다. Erikson(1959)은 자아정체감이란 시간의 경과와 외부 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유지되는 자아의 내적 동질성과 연속성이라고 하였다. 자아정체감은 일관성 있는 일련의 태도, 가치, 신념을 갖기 위한 개인적 탐색 과정을 거치면서 형성되어진다. 자아정체감의 형성에 있어 개인차가 나타나는 시기는 대략 청소년 후기라고 여겨지며(Waterman, 1985; Schultheiss & Blustein, 1994), 이러한 개인차는 청소년의 개인적 적응(Waterman, 1985), 직업행동(Blustein, Devenis, & Kidney, 1989), 그리고 인지·도덕 발달(Marcia, 1988)에 영향을 주게 된다.

이처럼 자아정체감 형성이 청소년의 발달과 적응에 중요하기 때문에, 청소년 학자들은 자아정체감의 형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밝혀내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일찍이 Erikson(1950, 1968, 1980)은 그의 많은 저서 속에서, 자아정체감의 형성과 관련하여 청소년의 심리사회적(psychosocial) 환경을 이해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그 중 가정은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형성을 촉진 혹은 후진시키는 중요한 사회적 체제로서 인식되어졌으며, 많은 실증적 연구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Adams & Fitch, 1983; Adams and Jones, 1983; Blustein & Palladino, 1991; Cooper, Grotevant, Condon, 1984; Enright, Lapsley, Drivas, & Fehr, 1980; Grotevant, 1983; Rice, 1990).

후기 청소년기와 관련하여, 가정내에서 이루어지는 개체화가 자아정체감 형성에 영향을 주는

자를 알아보는 몇몇 연구들이 있다. 그러나 이들 연구(Anderson & Fleming, 1986; Cooper et al., 1983; Kroger, 1985; Kroger & Haslett, 1988)들은 서로 다른 결과를 보였는데, 이는 개체화를 보는 관점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여겨진다. 개체화에 대한 개념이 점차 정립되어지면서, 많은 학자들은 청소년이 부모로부터의 분리 속에서 적당한 친밀감을 유지할 때 자아정체감의 형성이 촉진되어진다는 것에 동의하고 있으며, 실증 연구도 이를 제시하고 있다(Allison & Sabatelli, 1988; Baik, 1997; Campbell, Adams, & Dobson, 1984; Cooper, Grotevant, & Condon, 1983; Grotevant & Cooper, 1985; Josselson, 1988). 개체화의 네 가지 관계 유형을 이용하여, 개체화가 자아정체감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좀더 자세히 살펴본 결과, 개체화형은 Marcia의 자아정체감 지위에서 가장 높은 성취

점수와 가장 낮은 혼미점수를 보인 반면, 애매형은 가장 높은 혼미점수와 가장 낮은 성취점수를 보였다. 또한 의존형은 가장 높은 폐쇄점수를 보인 반면, 가독립형은 가장 낮은 폐쇄점수를 보였다(Baik, 1997).

한편, 우리 나라에서도 청소년의 개체화와 자아정체감 형성과의 관계를 조사한 연구가 있으나(배제현, 1994; 전희정, 1996), 아쉽게도 모두 정신분석학적 관점에서 개념화된 좁은 의미의 개체화에 관한 연구들이다. 자아정체감의 형성을 촉진하는 것은 단순한 부모로부터의 분리가 아니라, 분리와 연결의 상호작용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개체화의 네 가지 관계유형을 이용하여 분리와 연결의 상호작용이 우리 나라 후기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형성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전라북도의 중소도시에 소재한 두 개의 대학교에 재학중인 대학생 297명(남학생 147명, 여학생 150명)이었다. 18~21세 학생은 207명(69.7%)이었고, 나머지 학생들도 모두 22~27세로서, 대부분이 청소년 후기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학년별로는 1학년과 2학년이 각각 114명(38.8%)과 77명(26.2%)으로서 전체의 65%에 해당되었다. 학생들의 전공은 매우 다양하여서 전체 학생을 대표한다 볼 수 있다. 자연과학계열이 78명(27.1%)으로 제일 많았고, 공학계열이 65명(22.6%), 사회계열이 57명(19.8%), 인문계열이 30명(10.4%), 예술계열이 22명(7.6%), 사범계열이 11명(3.8%), 가정계열이 9명(3.1%), 체

육계열이 5명(1.7%), 기타가 11명(3.8%)이었다. 학생들의 부모는 절대적으로 양친부모가 많았으며(266명, 90.5%), 19명(6.4%)의 학생이 홀어머니와 살고 있었다.

2. 측정도구

1) 한국 청소년 후기 개체화 척도

백지숙·도현심·박성연(1998)이 최근 개발한 총 16문항의 한국 청소년 후기 개체화 척도는 모두 3개의 하위영역, 즉 연결의 영역인 연결, 그리고 두 가지 분리의 영역인, 부모의 통제, 자아신뢰감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결은 청소년과 부모 사이에 지속되는 연결의 관계로 모두 7개 문항

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아신뢰감은 일련의 일을 수행함에 자신의 힘을 믿고 스스로 처리해갈 수 있다는 청소년의 신념으로 5개 문항으로 구성되며, 부모의 통제는 청소년이 보는 관점에서, 부모가 원하는 방식대로 청소년의 행동을 조종하려는 부모의 행동을 의미하며 모두 4개 문항으로 이루어졌다. 본 척도는 4점 Likert 척도로써, 응답양식은 1점 '별로 그렇지 않다'에서 4점 '항상 그렇다'의 범위를 보인다. 본 연구에서 각 하위요인별 신뢰도는, 연결은 Cronbach's α 가 .86, 자아신뢰감은 .80, 부모의 통제는 .78이었다. 본 척도의 안면타당도, 구인타당도는 척도개발시 검증되었다.

2) 개정판 자아정체수준 척도(The revised version of the Extended Objective Measure of Ego Identity Status: EOM-EIS)

자아정체감의 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로는 Bennion과 Adams(1986)가 수정한 EOM-EIS를 번역하여 사용하였다. 척도의 번역은 백지숙·도현심·박성연이 공동으로 하였고, 서로 일치되지 않았던 부분은 상의하여 합의되었다. 완성된 번역본은 다섯 명의 여대생을 대상으로 실시된 예비 조사를 통해 학생 자신과 다른 대학생에게 보다 의미있는 표현이 될 수 있도록 수정되어졌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응답양식에 관한 것이었다. 학생들은 "강하게 반대(1), 반대, 약하게 반대, 약하게 찬성, 찬성, 강하게 찬성(6)"의 범주 대신, "전혀 그렇지 않다(1), 그렇지 않다, 약간은 그렇지 않다, 약간은 그렇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6)"로 수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recreation"은 번역하기 가장 어려웠던 용어였는데 "오락활동"으로 최종 번역되었다. 그 밖에 학생들이 제안하는 바를 바탕으로, 문맥상 어색한 부분들은 우리의 문화에 맞는 표현으로 수정되어졌다.

EOM-EIS는 관념과 대인관계의 두 영역으로 이루어지며, 관념영역은 직업, 정치, 종교, 삶의 철학을, 대인관계 영역은 성역할, 친구관계, 이성교제, 여가선용을 다룬다. 그러나, 본연구는 총체적인 자아정체수준에 관한 것이기에, 두 영역은 합쳐져 단일차원의 자아정체수준이 측정되었다. 본척도는 총 64문항의 척도로, 성취, 유예, 유실, 혼미의 각 자아정체수준은 16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많은 선행연구들이 개정판 EOM-EIS의 적절한 신뢰도와 타당도를 보여주고 있으며(Adams, Bennion, & Huh, 1989 참조), 본 연구에서 각 자아정체수준별 신뢰도는, 성취의 Cronbach's α 가 .77, 유예는 .67, 유실은 .80, 혼미는 .69이었다.

3. 조사 절차 및 자료 분석

자료수집은 강의실에서의 질문지 배부·수집으로 이루어졌다. 즉, 다양한 전공생들이 모인 6개의 교양과목 강의실에서 담당 교수의 주관 하에 질문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질문지 조사를 하기 전에, 본 연구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학생들에게 제공되었다. 학생들이 질문지 응답에 소요한 시간은 대략 25-30분이었다. 질문지에 학생의 이름이나 학생번호 등을 기입하지 않도록 하여 학생들의 솔직한 응답을 유도하였으며, 학생들의 질문지 조사 참여는 자발적으로 진행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SPSS PC 프로그램을 통해 분석되었다. 먼저, 조사대상 대학생의 일반적 성격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사용하였고,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Cronbach's α 값을 산출하였다. 개체화와 자아정체감과의 관계는 변량분석을 통해 분석되었다.

III. 연구결과

1. 개체화 유형

개체화의 양면인, 연결과 분리(자아신뢰감, 부모의 통제)의 상호작용을 조사하기 위해서 각 변인들은 평균을 기준으로 이분되었다. 이러한 이분이 가능했던 것은 세 변인 모두 단봉의(unimodal) 정상분포를 보였기 때문이다. 모두 네 개의 개체화 유형이 다음과 같이 만들어졌다:

연결과 분리(자아신뢰감, 부모의 통제¹⁾)의 점수가 평균 이상인 경우는 개체화형, 연결의 점수는 평균 미만이고 분리의 점수가 평균 이상일 경우는 가독립형, 연결의 점수는 평균 이상이되 분리의 점수가 평균 미만일 경우는 의존형, 연결과 분리의 점수가 모두 평균 미만인 경우는 애매형이었다. 먼저 부모의 통제를 분리의 측면으로 보았을 경우, 개체화 유형의 빈도에 있어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30.3%의 청소년이 개체화형이었으며, 의존형의 청소년은 25.3%, 애매형은 22.6%, 가독립형은 21.9%였다. 그러나, 자아신뢰감을 분리의 측면으로 보았을 경우, 개체화 유형의 빈도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chi^2=11.639$, 1 df, $p<.01$). 개체화형의 청소년이 35.0%, 애매형이 25.3%, 의존형이 20.5%, 그리고 가독립형이 19.2%의 순이었다.

2. 개체화와 자아정체감과의 관계

개체화의 네 가지 유형이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변량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사후 검증으로 Duncan의 중다범위 검정(multiple range test)을 사용하였다. 예측했던대로 개체화 유형에 따라 성취, 폐쇄, 혼미의 자아정체감 지위 점수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유예점수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표 1, 2>. 먼저 부모의 통제를 분리의 측면으로 하였을 경우, 개체화형이 가장 높은 성취 점수와 가장 낮은 혼미 점수를 보인 반면, 애매형은 가장 높은 혼미 점수를 보였다. 또한 의존형은 가장 높은 폐쇄 점수를 보인 반면, 가독립형은 가장 낮은 폐쇄 점수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자아신뢰감을 분리의 측면으로 하였을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즉, 자아신뢰감을 분리의 측면으로 하였을 경우, 개체화형은 가장 높은 성취점수와 가장 낮은 혼미 점수를 보인 반면, 애매형은 가장 낮은 성취점수와 가장 높은 혼미 점수를 보였다. 의존형은 유의하게 높은 폐쇄 점수를 보인 반면, 가독립형은 가장 낮은 폐쇄 점수를 보였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후기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형성 이 부모와의 밀접한 관계 안에서 개체감을 확립

1) 부모의 통제를 나타내는 4개의 문항은 모두 역코드 되어졌기에 높은 부모의 통제 점수는 부모가 자녀를 통제하지 않음을 나타내며, 낮은 부모의 통제 점수는 부모가 자녀를 통제함을 의미한다.

<표 1> 연결과 부모통제에 의한 개체화 관계유형과 자아정체감의 평균과 표준편차 (N=297)

	개체화 관계범주				F(3, 293)
	애매형 (75명)	가독립형 (57명)	의존형 (61명)	개체화형 (104명)	
성취	57.21b (7.87)	56.16b (11.97)	60.84a (10.08)	61.31a (10.10)	4.81 **
유예	53.39 (8.27)	53.57 (8.92)	56.11 (9.59)	54.44 (9.44)	1.33
폐쇄	38.38bc (10.01)	37.48c (9.34)	46.23a (8.64)	41.46ab (10.51)	11.81 ***
혼미	46.72a (9.03)	46.52a (11.41)	45.36ab (8.72)	42.96b (9.24)	2.61 *

* p=.052 ** p<.01 *** p< .001

<표 2> 연결과 자아신뢰감에 의한 개체화 관계유형과 자아정체감의 평균과 표준편차 (N=297)

	개체화 관계범주				F(3, 293)
	애매형 (75명)	가독립형 (57명)	의존형 (61명)	개체화형 (104명)	
성취	53.21c (8.89)	61.28ab (9.77)	58.33ab (9.21)	62.72a (10.23)	15.43 ***
유예	53.29 (8.30)	53.73 (8.97)	56.80 (9.33)	54.26 (9.54)	1.91
폐쇄	39.05bc (9.27)	36.48c (10.04)	47.14a (9.40)	41.56b (9.74)	13.65 ***
혼미	48.75a (9.49)	43.82bc (10.59)	46.47ab (8.70)	42.64c (9.00)	6.94 ***

*** p< .001

참고: 동일한 아래첨자(행열 내에서)는 Duncan의 사후검증(p<.05)에서 유의하게 다르지 않은 평균을 의미한다.

하는 개체화에 의해 촉진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먼저 청소년의 개체화 유형을 자세히 살펴보면, 부모의 통제가 분리의 측면이었을 경우 네 개의 개체화 유형은 빈도에 있어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으나, 개체화형 청소년이 가장 많았고 의존형 청소년은 그 다음으로 많았다. 이는 부모의 통제와 관련하여 개체화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며, 비교적 많은 수의 부모들이

자녀가 대학생이 되면 자녀에 대한 통제를 절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대학생이 된 자녀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계속 통제를 가하는 부모 또한 상당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자아신뢰감을 분리의 측면으로 하였을 경우 조급은 다른 결과를 보였다. 개체화 유형의 빈도에 있어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가장 많은 청소년이 개체화형, 다음은 애매형, 의존형, 가독립형의 순이었다. 부모와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자신을 신뢰하고 독립적으로 자신의 일을 수행하는 대학생이 많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며 개체화가 이 시기에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애매형, 의존형의 대학생 또한 상당수 있다는 것은 아직도 자립하지 못하고 부모에게 의존하는 대학생이 많이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부모로부터의 완전한 독립이 대학 졸업이후 혹은 결혼과 더불어 이루어지는 우리의 문화를 반영한다고 여겨지며, 따라서 우리 나라에서 개체화는 대학 시기 이후까지 계속 진행된다고 볼 수 있겠다.

한편, 기존의 청소년 발달 이론과 연구들에서 시사한 바와 같이, 청소년의 개체화 정도는 자아정체감 형성과 유의한 관계가 있었다. 부모의 통제와 자아신뢰감을 각각 분리의 측면으로 하였을 경우, 개체화형이 가장 높은 성취 점수와 가장 낮은 흥미 점수를 보인 반면, 애매형은 가장 높은 흥미 점수를 보였다. 또한 의존형은 가장 높은 폐쇄 점수를 보인 반면, 가독립형은 가장 낮은 폐쇄 점수를 보였다. 즉, 부모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되 부모가 자녀의 독립을 인정해주거나, 혹은 청소년이 자신을 신뢰할수록 청소년은 자아정체감의 위기를 극복하고 진정한 의미의 수행(commitment)을 하게 되는 반면, 부모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지도 않으면서 부모가 자녀를 계속 통제하거나, 청소년 자신도 자신을 신뢰하지 못할 때는, 정체감의 위기도 수행도 없는 정체감 혼미상태에 있게 되는 것이다. 또한 대부분의 중요한 결정을 부모의 충고에

따르는 의존형 청소년은 부모에 의해 정해진 가치와 삶의 목표에 머무르기 쉬운 반면, 자신의 독립을 주장하는 가독립형은 부모의 가치와 목표를 보다 더 거부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들은 LAIQ를 이용하여 개체화와 자아정체감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Baik, 1997) 결과와 대체로 일치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네 개의 개체화 유형이 유예 점수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은 반면, Baik의 연구에서는 유의한 차를 보였으며 의존형이 아닌 애매형이 가장 높은 유예점수를 보였다. 이러한 차이점은 후속 연구 없이 설명되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나, 우리 나라 청소년의 유예과정은 부모가 제안한 선택권 내에서 보다 활발히 이루어진다고 추정된다.

본 연구가 우리 나라 후기 청소년의 개체화와 자아정체감 형성의 관계를 처음으로 살펴본 연구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으나 몇 가지 제한점을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체화 유형의 분류를 표본의 평균에 의존하기 때문에 유형의 분류가 절대적이라기보다는 표본에 의존되는 결함이 있다. 이는 아직 우리 나라에서의 개체화 연구가 시작단계이기에 이해되어지나, 앞으로 많은 후속 연구를 통해 절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유형 분류를 위한 기준이 개발되어야 하겠다. 둘째, 본 연구에서의 표집이 지방의 중소도시에서 이루어졌기에 연구결과의 일반화에 주의가 따른다. 따라서 다른 지역의 대도시, 중소도시 등에서의 추후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자아정체감의 척도로 개정판자아정체수준척도(EOM-EIS)가 사용되었으나, 우리나라의 문화와는 맞지 않는 문항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척도의 타당도를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진다. 물론 EOM-EIS가 현재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대표적인 자아정체감 척도라 할 수 있으나, 한국의 청소년에게 보다 적합한 자아정체감 척도의 개발과 적절한 이용이 더욱 요망된다.

참고문헌

- 배제현(1993). 청소년기의 분리-개체화와 자아정체감, 학교 및 가정생활에 대한 적응간의 관계. 계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배제현(1994). 청소년기의 분리-개체화에 관한 일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17, 71-90.
- 백지숙·도현심·박선영(1998). 한국청소년후기개체화척도 개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6(10), 89-102.
- 장근영·윤진(1992). 청소년기 자아중심성: 분리-개별화과정 및 역할취득 수준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발달, 5(1), 157-175.
- 전희정(1996). 청소년의 분리-개별화 과정과 자아정체감 형성과의 관계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Adams, G., Bennion, L., & Huh, K.(1989). Objective measure of ego identity status: A reference manual. (Available from G. Adams, department of Family Studies, University of Guelph, Guelph, Ontario.
- Allison, M., & Sabatelli, R.(1988). Differentiation and individuation as mediators of identity and intimacy in adolescence.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3, 1-16.
- Baik, J. S.(1997). *Individuation, college adjustment and ego identit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 Bennion, L. D., & Adams, G. B.(1986). A revision of the extended version of the Objective measure of Ego Identity Status: An identity instrument for use with late adolescents.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1, 183-198.
- Blos, P.(1979). *The adolescent passage*.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 Blustein, D. L., Devenis, L. E., & Kidney, B. A.(1989). Relationship between the identity formation process and career development.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6, 196-202.
- Erikson, E. H.(1959). Identity and the life cycle. *Psychological Issues*, 1(1), 22-23
- Grotevant, H. D., & Cooper, C. R.(1982). *Identity formation and role taking skill in adolescence: An investigation of family structure and family process antecedents*. Final report prepared for the National Institute of Child Health and Human Development.
- Grotevant, H. D., & Cooper, C. R.(1985). Patterns of interaction in family relationships and the development of identity formation in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56, 415-428.
- Grotevant, H. D., & Cooper, C. R.(1986). Individuation in family relationships. *Human Development*, 29, 82-100.
- Hoffman, J. A.(1984). Psychological separation of late adolescents from their parent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1, 170-178.
- Josselson, R.(1973). Psychodynamic aspects of identity formation in collage women.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1), 3-52.
- Josselson, R.(1988). The embedded self: I and thou revisited. In D. K. Lapsley & F. C. Power (Eds.), *Self, ego and identity* (pp. 91-106). New York: Springer-Verlag.
- Lapsley, D. K., Rice, K. G., & Shadid, G. E.(1989). Psychological separation and adjustment to colleg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6, 286-294.

- Levine, J. B., Green, C. J., & Millon, T.(1986). The separation-individuation test of adolescenc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50, 123-137.
- Mahler, M., Pine, F., & Bergman, A.(1975). *The psychological birth of the human infant*. New York: Basic Books.
- Marcia, J. E.(1988). Common processes underlying ego identity, cognitive/moral development, and individuation. In D. K. Lapsley & F. C. Power(Eds.), *Self, ego, and identity: Integrative approaches* (pp. 211-225). New York: Springer-Verlag.
- Orlofsky, J., & Frank, M.(1986). Personality structure as viewed through early memories and identity status in college men and wome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0(3), 580-586.
- Quintana, S. M., & Kerr, J.(1993). Relational needs in late adolescent separation-individuation.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71, 349-354.
- Quintana, S. M., & Lapsley, D. K.(1990). Rapprochement in late separation-individuation: A structural equations approach. *Journal of Adolescence*, 13, 371-385.
- Rice, K. G., Cole, D. A., & Lapsley, D. K.(1990). Separation-individuation, family cohesion, and adjustment to college: Measurement validation and test of a theoretical model.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7, 195-202.
- Schultheiss, D. P., & Blustein, D. L.(1994). Contributions of family relationship factors to the identity formation process.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73, 159-166.
- Waterman, A. S.(1985). Identity in the context of adolescent psychology. In A. S. Waterman(Ed.), *Identity in adolescence: Processes and concepts*(pp.5-24). San francisco, CA: Jossey-Bass.